

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미국-이란 종전 협상 타결! FOMC 이후 실적시즌 대기



[투자전략팀]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미국 이란 종전 협상 타결, 남은 속제는 6월 FOMC 이후 2분기 실적시즌 돌입

- 필자는 그동안 7 ~ 8월 KOSPI 강세의 근거로 2분기 실적 시즌과 미국-이란 종전 협상의 나비효과를 언급. 따라서 실적/펀더멘털 장세에서 금리 변수로 인한 노이즈는 불가피하지만, 이는 비중확대 기회임을 강조. 지난주 후반부터 시 수익성 논란에 이어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KOSPI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자극. 이번주 물가, 파생 수급 압박, 글로벌 유동성 위축을 소화하면서 가격, 기간 조정을 거쳤다고 판단. 다음주 6월 FOMC 결과에 따라 추가 등락은 감안해야겠지만, 이를 기점으로 상승추세를 재개해 나갈 전망
- 1차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기 때문. 12일(한국 시간) 오전 4시 30분, 트럼프는 "이란과 종전 관련 훌륭한 합의를 끝냈다"라며 최종 사인은 유럽에서 관련국 정상들을 모두 모아놓고 할 것이라고 발표. 이스라엘 총리실도 "미국이 이란의 제안을 수용했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멘트가 나옴. 다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발 소식에는 마지막에 트럼프가 바꾼게 있어 이란이 아직 합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발언
-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임박 이슈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환호. 유가는 86달러, 미국채 금리 10년물은 4.46% 수준으로 레벨다운되었고, 달러인덱스는 100p를 하회. 금융시장 안정에 힘입어 나스닥은 2.54%, S&P500은 1.75% 상승.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는 11.48% 급등했고, 야간선물도 7.58% 레벨업
- 이번주 토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 최종 사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닐 수 있음. 하지만, 명확한 점은 이전보다는 종전 협상 타결에는 바짝 다가섰다는 것. 불협화음으로 인한 금융시장 등락은 감안해야겠지만, 실질적인 협상 타결, 사인 이후에는 유가 안정으로 인한 물가 우려 완화,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 안정이 글로벌 증시에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전망
- 이제 남은 속제는 다음주 6월 FOMC 결과. 3월 FOMC 점도표에서는 26년 1번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지만,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26년 금리동결, 또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최근 고용 서프라이즈, CPI 레벨업 여파로 FED Watch 기준 26년 10월, 27년 3월 두 번 금리인상을 선반영한 상황. 점도표 상황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26년 금리동결, 27년 금리동결을 시사할 경우 시장에는 오히려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될 수 있음. 26년, 27년 각각 1번 금리인상을 시사하더라도 증시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유발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케빈 워시의 기자회견 내용도 중요. 연준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기자회견으로 케빈 워시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고, 첫 FOMC회의, 기자회견임을 감안할 때 매파적인 스탠스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피력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 점도표 또는 FOMC 성명서가 매파적일수록 케빈 워시의 기자회견은 비둘기파적일 것으로 예상.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6월 FOMC 결과가 오히려 분위기 반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이후에는 본격적인 2분기 프리어닝 시즌으로 돌입. 7월 첫째주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 상향 조정 가시화될 전망. 실적 전망 정체 국면인 6월에도 선행 EPS는 상승 지속. 5월말 1,015p에서 6월 11일 1,057p로 레벨업. 현재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7.34배에 불과. Deep Value 구간에서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은 KOSPI 상승 압력을 높이고, 상승 여력을 확대해 나갈 것
- 한편, 최근 조정을 통해 가격, 실적대비 고평가 부담을 해소한 업종들이 다수 등장. 단기적으로 실적대비 저평가/소외주 중심의 순환매 대응 필요. 화학, 에너지, 철강, 기계, 증권, 건설, 조선, 비철/목재, 상사/자본재 등이 실적대비 저평가 수준에 위치. 이와 함께 7월, 8월 상승추세 재개에 대비한 주도주 매집 전략도 필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전력기기, 조선, 방산 등이 이번 조정을 통해 실적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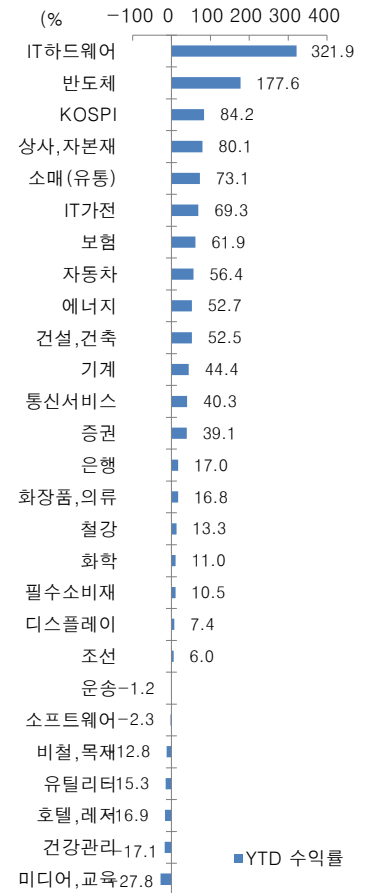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장**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p)	등락율(%)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7,764	0.4	-10.1	-0.8	38.4	88.9	167.1	84.2
에너지	7,273	-0.5	-10.2	-9.1	12.4	47.5	79.7	52.7
화학	4,966	2.1	-7.6	-21.6	2.8	2.6	45.7	11.0
비철,목재	6,168	-1.3	-10.5	-23.7	-27.5	-22.0	24.0	-12.8
철강	2,459	-1.5	-10.7	-29.1	-0.3	13.1	24.7	13.3
건설,건축	2,320	-2.7	-8.1	-25.1	5.1	48.8	49.2	52.5
기계	12,941	-1.4	-6.9	-28.0	10.6	37.0	110.5	44.4
조선	9,238	-1.5	-6.0	-19.1	-8.9	-0.5	36.7	6.0
상사,자본재	6,253	1.4	-10.3	-7.6	26.7	88.2	137.8	80.1
운송	1,741	0.8	-3.8	-9.1	-9.4	0.3	-1.5	-1.2
자동차	18,541	-0.7	-13.7	-6.3	10.7	57.3	109.6	56.4
화장품,의류	5,728	1.3	0.9	-8.3	6.7	12.9	14.9	16.8
호텔,레저	1,921	1.7	2.9	-4.4	-9.9	-15.6	-2.9	-16.9
미디어,교육	570	5.0	1.4	-8.1	-29.4	-23.3	-23.5	-27.8
소매(유통)	3,489	3.2	8.1	17.0	49.0	69.0	77.6	73.1
필수소비재	7,530	1.5	3.4	-3.1	7.2	9.8	14.9	10.5
건강관리	8,770	0.1	-5.4	-10.1	-18.8	-18.1	3.5	-17.1
은행	3,132	-1.2	-3.7	-4.4	-1.6	18.4	40.3	17.0
증권	3,122	-0.1	-8.0	-22.3	-13.5	43.4	62.2	39.1
보험	16,821	2.0	-11.1	19.1	31.0	50.9	92.3	61.9
소프트웨어	7,002	0.8	-12.9	1.6	2.8	-2.0	7.3	-2.3
IT하드웨어	5,781	0.8	1.7	66.1	222.1	287.9	656.4	321.9
반도체	57,674	0.6	-12.1	7.5	80.0	213.7	516.7	177.6
IT가전	3,136	0.7	-20.5	-11.1	33.5	47.5	130.3	69.3
디스플레이	757	-0.3	-18.7	-2.0	4.5	1.2	29.5	7.4
통신서비스	515	0.0	-1.8	1.7	13.4	41.4	43.5	40.3
유틸리티	1,150	-0.4	-5.8	-18.0	-22.2	-19.1	22.7	-15.3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9.5	16.8	18.0	3.6	3.2	3.4	18.4	19.0	18.8	1.4	3.0	▲
선진국	20.9	18.2	19.3	3.9	3.5	3.6	18.5	19.1	18.9	1.5	3.2	▲
신흥국	13.4	11.2	12.2	2.4	2.1	2.2	17.9	18.6	18.3	1.4	2.0	▲
북미	23.1	19.7	21.0	5.1	4.4	4.7	22.0	22.6	22.4	0.9	1.8	▲
유럽	15.4	14.0	14.7	2.3	2.2	2.3	15.1	15.5	15.3	0.9	0.9	▲
퍼시픽	17.5	15.8	16.8	1.9	1.8	1.9	11.1	11.6	11.3	1.4	1.6	▲
라틴	9.7	9.2	9.5	1.9	1.8	1.8	19.8	19.0	19.4	1.5	1.5	▲
EM 유럽	10.3	8.9	9.6	1.5	1.3	1.4	14.3	14.6	14.6	-0.2	-0.4	
EM 아시아	14.2	11.5	12.8	2.5	2.2	2.4	17.9	18.8	18.4	1.6	2.4	▲
선진 시장												
S&P 500	23.0	19.6	20.8	5.2	4.5	4.8	22.6	23.0	22.9	1.6	2.7	▲
NASDAQ	30.5	23.6	25.9	7.3	6.0	6.4	23.8	25.2	24.7	1.7	2.2	▲
프랑스	15.0	13.8	14.3	2.0	1.8	1.9	13.1	13.4	13.3	0.2	0.6	▲
독일	15.7	13.6	14.5	1.8	1.7	1.8	11.7	12.5	12.2	1.2	1.3	▲
영국	12.7	11.8	12.3	2.2	2.0	2.1	17.2	17.2	17.2	0.7	2.0	▲
일본	17.4	15.4	16.8	1.9	1.8	1.9	10.9	11.4	11.0	2.2	3.6	▲
신흥 시장												
중국	12.3	10.7	11.5	1.4	1.3	1.3	11.4	12.0	11.7	-0.3	-0.6	
인도	20.9	17.8	20.0	3.0	2.7	2.9	14.3	15.0	14.5	1.6	0.5	▲
한국	9.6	7.4	8.4	2.8	2.1	2.4	29.4	28.5	28.9	3.7	8.1	▲
대만	25.3	19.9	22.3	5.5	4.6	5.0	21.8	23.1	22.5	2.1	4.1	▲
브라질	8.2	7.8	8.0	1.7	1.5	1.6	20.6	19.7	20.1	1.6	2.7	▲

기준일: 2026.06.10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8.0					○		●			
선진국	19.3						○	●			
신흥국	12.2					○	●				
북미	21.0				○			●			
유럽	14.7							○ ●			
퍼시픽	16.8								○	●	
라틴	9.5						○	●			
EM 유럽	9.6									○	●
EM 아시아	12.8				○	●					
S&P 500	20.8				○		●				
NASDAQ	25.9				○	●					
프랑스	14.3						○ ●				
독일	14.5						○		●		
영국	12.3					○		●			
일본	16.8								○	●	
중국	11.5						○ ●				
인도	20.0		○	●							
한국	8.4			●	○						
대만	22.3										○ ●
브라질	8.0					○	●				

기준일: 2026.06.10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26.4	16.1	12.2	14.2
	선진국	21.1	15.2	12.5	13.8
	신흥국	57.2	20.3	11.0	15.7
권역(소)	북미	23.6	17.2	13.7	15.5
	유럽	17.4	10.3	10.0	10.2
	퍼시픽	12.5	11.0	8.9	10.0
	라틴	29.7	5.3	5.7	5.5
	EM 유럽	18.2	15.5	11.0	13.2
EM 아시아	68.5	23.1	12.0	17.5	
선진국	S&P 500	24.2	17.6	13.9	15.8
	NASDAQ	42.0	29.2	19.3	24.3
	프랑스	20.1	9.0	9.4	9.2
	독일	9.6	15.0	13.2	14.1
	영국	19.2	7.4	7.9	7.7
	일본	12.2	12.7	10.7	11.7
신흥국	중국	13.7	15.0	13.4	14.2
	인도	12.4	17.6	12.6	15.1
	한국	275.5	29.2	6.3	17.7
	유럽	17.4	10.3	10.0	10.2
	브라질	37.3	4.8	5.4	5.1

기준일: 2026.06.10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